

관광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연구 :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현나*·문보은**·이동렬***

본 연구는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광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변수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관광만족,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로 구성된 총 4개의 변수를 측정하였다. 관광만족은 신체적/정서적/심리적 만족의 3가지 차원으로, 장애수용은 장애극복의지와 장애인식으로 구성된 2가지 차원으로 분류했으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각각 단일차원으로 구성했다. 연구 분석을 위해 '관광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 불성실 설문을 제외한 225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만족 중 신체적 만족은 장애극복의지와 장애인식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만족은 장애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관광만족 중 정서적 만족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적 만족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장애인식)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과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넷째 선천적 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호텔경영학과 석사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과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간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관광만족 중 신체적 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장애수용은 장애극복의지와 장애인식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 기여와 향후 무장애 관광 시장의 발전 방향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 관광만족,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I. 서론

1. 연구문제

OECD 고소득회원국, IMF 선진 경제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내 선진국 승격 등 한 국은 다양한 선진국 기준에 부합해오며 그 면모를 지켜오고 있다.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자국 내 해결되어야 할 과제 역시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 ‘장애인 인권’은 지 속해서 제기된 문제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을 포 함해 한국의 다양한 인권문제가 명시되었으며, 특히 정신과 지적 장애인의 차별을 언급하면서 대 한민국의 장애인 법 개정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의 과반수가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54.0%)’, ‘인권차별 정도가 심각하다(69.1%)’고 답 했으며, 침해/차별을 많이 당하는 집단에서 장애인이 2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국의 장애 출현율은 5.39%로 OECD 국가 평균 장애 출현율인 15.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영국의 장애 출현율 21.1%, 미국 19.3%, 스웨덴 16.1% 등 선진국과도 3배 이상 차이 를 보인다(김성희 외, 2018; 조윤화 외, 2020). 이는 국가마다 장애를 규정하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회적 장애’의 인정 유무이다. ‘사회적 장애’란 올바른 사회생활 을 가로막는 장애를 일컫는 용어로 실업, 노령, 심신장애 등 후천적 사고요인 혹은 빈곤, 차별,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이철수, 2009).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이를 장애로써 인정하며 장애인들의 겪는 ‘불평등과 차별’에 집중하고 있 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의 장애인 유형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2020년 장애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2.3만 명으로, 2017년 대비 약 4.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법정 장애인만을 포함한 것으로, 사회적 장애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 비중은 10%에 이를 것이다. 또한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89% 차지하며, 특히 중·고령기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현 사회에서 장애인의 비중은 더욱 증가 할 것(오승연 외, 2018)으로 예측된다.

2.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및 산업발달에 따라 각종 사고/재해, 질병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천적 장애인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박준모 외,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출현율은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장애’로 인정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으며,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오승연 외, 2018)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장애의 유형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의 종류와 정의 역시 주로 ‘의학적 판정’ 기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홍선기, 2021).

그러나 장애는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제약’이라는 시각에서 인식해, 이를 극복하는 데 국가적 개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의 새로운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석원, 정희정, 2008). 또한 장애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예측 가능한 장애 역시 이에 포함된다(정정희, 2021). 즉 장애는 단순히 외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후천적 환경에 의해 영향받는 내적(심리상태 : 우울증, 조울증 등) 요인과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관광 상품의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로서 관광활동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이봉구, 2013). 장애인에게 있어 관광, 즉 여행의 가치는 단순한 여가활동의 차원을 뛰어넘어 인간다운 삶, 인권 신장의 상징이자 비장애인과 기회의 평등성을 공유하는 것이다(맹성준, 김은경, 2018). 더불어 관광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성과 생활욕구(전영록, 박상훈, 2009), 사회적 재활 치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배만규 외, 2016)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에 비교해 장애인의 인정 범위가 엄격한 편이며, 장애는 ‘소수의 사람’만이 갖는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수요층이 적다는 이유로 기업은 이들을 관광 활동의 주요 고객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관광 시설과 복지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요소라는 점에서, 그리고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범위까지 고려한다면 ‘장애인 관광’에 있어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질병, 사건/사고, 사회적 장애 등으로 인해 장애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가, 관광 등 문화 활동의 향유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신체적 불편함 및 정신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역시 관광활동의 제약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를 통해 장애를 재해석하고 이를 새로이 고찰할 필요성

이 제기되는 바이다.

장애인과 관련한 연구는 의학, 교육학, 심리학 등 특정 분야에서 벗어나 관광학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김기완, 김남조, 2020)로 부상하고 있다. 그간 장애인 관광에 관한 연구는 장애인의 관광행동(관광예약, 관광활동, 관광동기, 관광만족, 관광태도 등) 연구(전영록, 2012; 서현, 2018; 김기완, 김남조, 2020), 관광시설/환경(접근성, 편의시설 등)에 관한 연구(이봉구, 2008; 임지은, 이형룡, 2014)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미영, 양성수, 2020).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는 장애인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이를 고찰하고 있으며, ‘관광의 주체’로 보는 관점에서 이뤄진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이경찬, 김남조, 2016).

또한, 후천적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삶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선천적 장애인보다 상대적인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며, 개인의 심리적 요인 측면에서도 이들 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각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했으며(박영아, 김태준, 2010; 신은희, 오우미젠타로우, 2012; 김혜미, 2016; 맹성준, 김은경, 2018), 이들 간의 집단 차이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연구 목적

기존 선행연구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개념과 정의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관한 연구로써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를 구분해 비교·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 간의 연구 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찰함으로써 이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유형을 크게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선천적 장애인은 ‘출생과 동시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라 정의 내렸다. 다음으로 후천적 장애인은 ‘출생 이후 후천적인 환경,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 요소의 장애를 갖게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비장애인 또한 훗날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후천적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정의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관광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변수의 정의를 개념화한다. 둘째 실증분석 과정을 거쳐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각각 변수에 있어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간의 집단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 기여와 향후 무장애 관광 시장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관광만족

현대사회에서의 관광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여가활동(Hobson & Dietrich, 1994; 지명원, 조태영, 2012)이자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경찬, 김남조, 2016) 중 하나이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기계발, 자아실현, 건강 유지(증진) 등에 효과적으로 기여되며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et al., 2015; 박슬기, 조인환, 2017).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 사회 적응 능력 등을 향상하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이명철, 2012; 고미영, 양성수, 2020). 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통한 만족, 즉 관광만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관광만족이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작용함을 확인했다.

이명철과 강인호(2012)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과 삶의 질 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를 규명했다. 연구 결과 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은 삶의 질 유형(자아존중감, 자아성취감,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리상(2020)은 장애인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여행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각각의 변수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는 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 이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과 여행 만족도 향상이 요구될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박상훈(2010)은 지체장애인의 관광만족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관광만족 중 정서적 만족과 심리적 만족이 자기실현성과 심리적 안정성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관광만족과 자발성과의 관계에서는 신체적 만족과 심리적 만족이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사회성의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규명했으며, 이들을 위한 복지관광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초연구를 제공했다.

2. 장애수용

장애수용(Acceptance of disability)은 ‘상실에 대한 수용’이라고도 하며, 장애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상실감이 본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Marinelli & Dell Orto, 1984; 정승원, 2012)를 일컫는다.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을 ‘장애 극복이나 자기정체성과의 통합’으로 주로 설명되며(Livneh, 2001; 박현숙, 양희택, 2013), 장애의 적응/순응/수용 정도 등 ‘자신의 장애를 가치 저하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정승원, 2012). 또한 장애수용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예측하는 변수(조금분, 2018)로, 심리 사회적 적응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Albrecht & Devlieger, 1999; 박자경, 김종진 2009; 박자경, 엄명용, 2009; 정승원, 2012; 고관우, 황경수, 2014)임을 확인했다.

이무숙과 정대영(202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식과 장애수용(태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즉 긍정적인 장애인식은 장애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자경과 김종진(2009)은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신체적(신체상태), 심리적(장애수용), 사회적(사회적지지, 사회참여), 사회경제적 요인(사회경제적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변수 요인 중 ‘장애수용’은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 장애수용, 사회참여 중에서 장애수용이 주관적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곧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의 장애를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일수록 이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선천적 장애인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장애에 대한 적응을 시작하며 이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만, 후천적 장애인은 비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해오다 갑작스럽게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적응적 어려움을 겪는다(양혜린 외, 2017). Alfano et al.(1993)의 연구에서는 장애발생시기가 이룰수록 장애수용 및 적응이 용이하다는 결과를 밝혔는데, 이는 곧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려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곧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간의 장애수용은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해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간의 장애수용 차이 유무를 검증하고 각 변수 간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수용/거부하는 주관적인 평가이자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판단)’로 정의되고 있다(Rosenberg, 1979; 정승원, 2014). 이는 크게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분류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개인 스스로의 능력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잘 수용해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낀다(이상훈, 최성준, 2018). 때문에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성취감을 높게 지각하며 잠재적 지도력과 사회적 기술, 실용적 지식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윤성욱, 권연숙, 2015).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의존, 실패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우울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Reasoner & Dusa, 1991; Shahar & Davidson, 2003).

한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동 결과를 설명하고 예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재적 변인이다(P lummer, 2001) 인간의 행동, 적응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선행변수 또는 결과변수로서 활용되고 있다(장덕희, 임승희, 2021). 오윤진과 이순민(2017)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긍정적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긍정적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장애수용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에 따라 긍정적 장애수용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결과변수로, 생활만족에서는 선행변수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윤춘모와 박재학(2020)은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우울,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우울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우울이 사회적지지-삶의 만족을 매개할 때 자아존중감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노인이 지각하는 우울은 삶의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 완충작용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장애인 삶의 만족에 기여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결과로써 제시했다.

4. 삶의 질

삶의 질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본인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한 주관적인 만족의 수준(백림정, 한진수, 2017),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신승배, 2017)이자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Diener, 1984)’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녕감(Well-being), 복지(Welfare), 생활만족, 행복감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개념화되고(전명숙, 2018) 있으나 삶의 질은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보

다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형수, 김용섭, 2011; 김성원, 2015).

삶과 관련한 모든 요인에 의해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상이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객관적인 조건은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구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주관적/정서적 견해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Diener, 1984; Diener, E & Diener, M, 1995; 김정운, 이장주, 2005; 박자경, 김종진, 2009; 신승배, 2017).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장애인 스스로 장애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들이 지각하는 삶의 주관적/인지적 평가가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달엽, 2014). 더불어 장애인 역시 주체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사회적 참여, 여가·문화생활의 향유 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각한 긍정적 정서, 만족의 정도는 곧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장애인의 주체적 활동은 곧 개인의 삶의 질과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다(박자경, 김종진, 2009; 신승배, 2017)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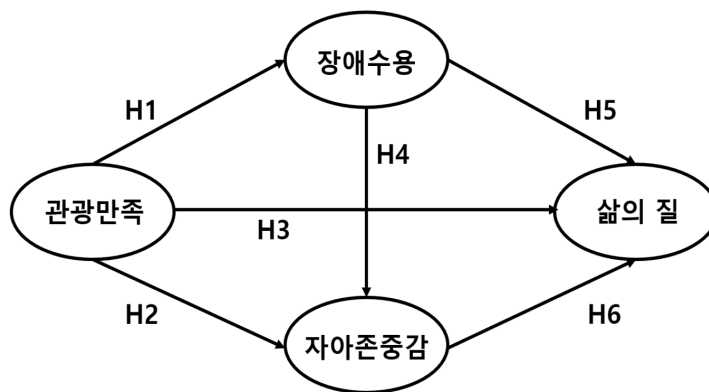
배만규와 박상훈(2008)은 청각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이 삶의 질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 관광활동 만족은 삶의 질과 행위의도에 각각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삶의 질(자아존중, 자아성취, 대인관계)은 행위의도(활동추천)와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관광활동의 만족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시사하였다.

신승배(2017)는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삶의 영역별 만족도(5점 만점)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3.89점)가 가장 높았으며, 친구 관계(3.65점) > 거주지(3.59점) > 하는 일(3.41점) > 건강(3.09점) > 여가활동(3.08점) > 수입(2.86점)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삶의 하위 영역에 대한 만족도-삶의 질 간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비교한 결과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으며, 수입 > 가족 > 거주지 > 건강 > 친구관계 > 여가활동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요인의 충족보다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일을 통한 성취감이 삶의 질에 더 높은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연구는 각 삶의 하위 영역에 대한 만족도-장애인의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명철과 강인호(2012)는 장애인의 관광만족이 삶의 질(자아존중감, 자아성취감, 대인관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전리상(2020)의 연구에서는 여행의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배만규와 박상훈(2008)의 연구 또한 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이 삶의 질과 행위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만족은 개인의 내면(심리적 상태)과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는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태도, 즉 장애수용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 1, 2, 3을 설정하였다.

H1: 장애인의 관광만족은 장애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장애인의 관광만족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장애인의 관광만족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무숙과 정대영(202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식-장애수용, 장애수용-삶의 질 간의 관계서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윤진과 이순민(2017)은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장애수용-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생활만족 간의 관계는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 4, 5, 6을 설정하였다.

H4: 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애인 또한 관광의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광만족을 다루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간의 집단 차이를 밝혀내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본 연구는 이들 간의 차이 유무를 검증하고자 한다. Alfano et al.(1993)는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장애수용 및 적응의 영향 관계를 파악했는데, 장애발생시기에 이룰수록 장애수용과 적응이 용이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본래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일수록 장애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곧 개인이 지각하는 내면적 요소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자신에 가치를 판단하는 자아존중감,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평가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 변수에 대해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7을 설정하였다.

H7: 관광만족,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대해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관광만족,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로 구성된 총 4개의 변수를 각각 측정하고자 했으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만족은 '관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오는 만족의 정도(크기)'라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박상훈(2010), 배만규와 박상훈(2008), 이명철(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항목의 문항을 수정·보완했으며, 총 12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둘째 장애수용은 '장애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로 정의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수용 지표'를 활용했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가치

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로 정의했다. 지명원과 조태영(2012)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이하: RSES)를 바탕으로 여가/관광 분야에 맞게 수정·보완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 또한 관광만족-자아존중감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고자 해당 연구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의 정도'로 정의했으며, 배만규와 박상훈(2008), 이명철(2012), 백림정과 한진수(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4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모든 항목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주요 변수를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관광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표본 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SNS) 공유 설문을 통하여 표본 응답을 수집하였다. 수집 기간은 2021년 09월 09일~10월 17일까지(39일간) 진행되었다. 분석 도구는 WIN SPSS 25.0 버전을 활용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효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요인분석 진행 후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활용해 이를 검증했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검증을 진행해 연구 가설 채택 유무를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으로 활용한 유효 표본 수는 225개이며, 표본의 관광이용행태 및 장애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관광이용행태의 경우 연평균관광횟수 '2회~4회(122명, 54.2%)', 평균관광기간 '1박~2박(113명, 50.2%)', 관광 목적으로 '즐거움·흥미·재미(95명, 42.2%)'를 추구하는 비중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특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 유형은 사회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192명, 85.3%)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했다. 장애 정도와 장애판정 시기는 각각 '장애 없음(115명, 51.1%)', '해당 사항 없음(117명, 52.0%)'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 유효 표본에서 절반 정도만을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관광이용행태 및 장애특성

구분		n(%)	구분		n(%)
연평균 관광 횟수	0회~1회	47(20.9)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14.7)
	2회~4회	122(54.2)		후천적 장애인	192(85.3)
	5회~9회	36(16.0)	장애 정도	중증	72(32.0)
	10회 이상	20(8.9)		경증	31(13.8)
평균 관광 기간	당일치기	78(34.7)	장애 판정 시기	장애등급 미판정	7(3.1)
	1박~2박	113(50.2)		장애 없음	115(51.1)
	3박~4박	28(12.4)		장애 발생 직후	25(11.1)
	5박 이상	6(2.7)		장애 발생 후 5년 이내	31(13.8)
관광 유형	레저 및 체험 관광	33(14.7)		장애 발생 후 10년 이내	13(5.8)
	유흥 및 쇼핑 관광	18(8.0)		장애 발생 후 15년 이내	12(5.3)
	휴양 및 경관 관광	155(68.9)		장애 발생 후 20년 이내	10(4.4)
	교육 및 역사 관광	13(5.8)		장애 발생 후 21년 이후	17(7.6)
	이벤트 관광	6(2.7)		해당 사항 없음	117(52.0)
관광 목적	경험 위주	26(11.6)			
	삶의 일탈 및 자아성찰	69(30.7)			
	친목 위주	26(11.6)			
	교육 문화 위주	9(4.0)			
	즐거움, 흥미, 재미 추구	95(42.2)			

2.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관광만족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계수로 산출했다. 타당도 분석은 요인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조를 회전시키는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적용했으며,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 전

체표본적합도(이하: Kaiser-Meyer-Olkin, KMO)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정 값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확인했다. 관광만족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항목 중 요인 적재량이 0.4 이하인 항목을 제거했으며, 총 8개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했다. 전체 분산 설명력은 77.521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는 0.855, 각각 차원의 신뢰도 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KMO값은 0.844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X^2=859.070$ (df=28, p=0.0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해 관광만족 문항의 척도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표 2〉 관광만족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정서적 만족	관광(여행)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865	3.027	37.834	.890
	나는 관광(여행)활동을 하는 동안 즐거움을 느꼈다.	.856			
	관광(여행)활동은 나에게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해준다.	.815			
	관광(여행)활동은 나에게 가치있는 경험이다.	.803			
심리적 만족	관광(여행)활동은 내 자신을 알게 해준다.	.863	1.647	20.594	.708
	관광(여행)활동을 통한 경험은 살아가는 지혜를 제공한다.	.745			
신체적 만족	관광(여행)활동은 체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	.904	1.527	19.093	.673
	관광(여행)활동은 나의 건강을 지켜준다.	.681			

총분산 설명력: 77.520, KMO = .844,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 859.070, df = 28 (p < .000)

2) 장애수용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장애수용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항목 중 요인 적재량이 0.4 이하인 항목을 제거했으며, 총 7개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했다. 분산 설명력은 67.509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는 0.618, 각각 차원의 신뢰도 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KMO값은 0.824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X^2=562.849$ (df=21, p=0.000)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해 장애수용 문항의 척도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표 3〉 장애수용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장애 극복 의지	나는 나의 장애를 잊고 살만큼 삶을 재미있게 산다. (나는 장애를 가지더라도 나의 장애를 잊고 살만큼 삶을 재미있게 살 것이다.)	.811	3.097	44.244	.853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에 만족한다.(나는 장애를 가지더라도 내 인생을 만족스럽게 보낼 것이다.)	.800			
	나는 장애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장애를 가지더라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771			
	비록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나는 장애를 가지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763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장애를 가지더라도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760			
장애 인식	장애는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내가 장애를 가진다면 장애는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872	1.629	23.265	.639
	나는 장애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어 속상하다.(내가 장애를 가진다면 무언가를 할 수 없어 속상할 것이다.)	.802			

총분산 설명력: 67.509, KMO = .824,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 562.849, df = 21 (p < .000)

3)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자아존중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든 항목은 요인 적재량 0.4 이상으로 확인돼 총 4개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했다. 분산 설명력은 68.543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는 0.847로 확인돼 모든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KMO값은 0.797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X^2=387.681$ (df=6, p=0.000)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해 자아존중감 문항의 척도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표 4〉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자아 존중감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888	2.742	68.543	.847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59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27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728			
총분산 설명력: 68.543, KMO = .797,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 387.681, df = 6 (p < .000)					

4) 삶의 질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삶의 질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든 항목은 요인 적재량 0.4 이상으로 확인돼 총 4개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했다. 분산 설명력은 63.184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는 0.803으로 확인돼 모든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KMO값은 0.785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X^2=279.339$ (df=6, p=0.000)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해 삶의 질 문항의 척도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표 5〉 삶의 질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삶의 질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837	2.527	63.184	.803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03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01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735			
총분산 설명력: 63.184, KMO = .785,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 279.339, df = 6 (p < .000)					

3. 가설검증

1)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간의 영향 관계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했다.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우선 관광만족과 장애극복의지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회귀식의 F값은 7.502, 수정된 R^2 은 0.080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관광만족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관광만족 중 신체적 만족만이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광만족과 장애인식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회귀식의 F값은 239.574, 수정된 R^2 은 0.762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관광만족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관광만족 중 정서적 만족과 신체적 만족이 장애수용(장애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관광만족과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1.721	.375		4.593	.000			부분 채택
정서적 만족	.097	.093	.077	1.043	.298	.747	1.339	
심리적 만족	.063	.090	.057	.699	.485	.617	1.622	
신체적 만족	.239	.084	.225	2.855	.005*	.662	1.510	
종속변수: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R^2 = .092$, Ad. $R^2 = .080$, $F = 7.502(df = 3, *p = 0.000)$								
*p < 0.05 **p < 0.001								

<표 7> 관광만족과 장애수용(장애인식)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516	.152		3.406	.001			부분 채택
정서적 만족	.217	.038	.217	5.756	.000**	.747	1.339	
심리적 만족	.051	.036	.059	1.417	.158	.617	1.622	
신체적 만족	.613	.034	.725	18.097	.000**	.662	1.510	
종속변수: 장애수용(장애인식), $R^2 = .765$, Ad. $R^2 = .762$, $F = 239.574$ (df = 3, *p = 0.000)								
*p < 0.05 **p < 0.001								

2) 관광만족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

관광만족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식의 F값은 17.445, 수정된 R^2 은 0.180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관광만족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관광만족 중 정서적 만족과 심리적 만족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관광만족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1.523	.317		4.806	.000			부분 채택
정서적 만족	.236	.079	.209	2.991	.003*	.747	1.339	
심리적 만족	.228	.076	.232	3.010	.003*	.617	1.622	
신체적 만족	.088	.071	.092	1.239	.217	.662	1.510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R^2 = .191$, Ad. $R^2 = .180$, $F = 17.445$ (df = 3, *p = 0.000)

*p < 0.05 **p < 0.001

3) 관광만족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관광만족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회귀식의 F값은 8.525, 수정된 R^2 은 0.092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관광만족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관광만족 중 정서적 만족만이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관광만족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2.082	.324		6.434	.000			부분 채택
정서적 만족	.215	.081	.197	2.675	.008*	.747	1.339	
심리적 만족	.090	.077	.094	1.164	.246	.617	1.622	
신체적 만족	.096	.072	.104	1.326	.186	.662	1.510	

종속변수: 삶의 질, $R^2 = .104$, Ad. $R^2 = .092$, $F = 8.525$ (df = 3, *p = 0.000)

*p < 0.05 **p < 0.001

4)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회귀식의 F값은 50.113, 수정된 R^2 은 0.305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장애수용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장애인식)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1.508	.260		5.809	.000			채택
장애극복의지	.408	.053	.455	7.711	.000**	.891	1.122	
장애인식	.232	.067	.206	3.484	.001*	.891	1.122	
종속변수: 자이존중감, $R^2 = .311$, Ad. $R^2 = .305$, $F = 50.113(df = 2, *p = 0.000)$								

* $p < 0.05$ ** $p < 0.001$

5) 장애수용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장애수용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회귀식의 F값은 40.720, 수정된 R^2 은 0.262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장애수용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장애인식)이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장애수용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1.815	.259		6.997	.000			채택
장애극복의지	.393	.053	.453	7.443	.000**	.891	1.122	
장애인식	.157	.066	.144	2.362	.019*	.891	1.122	
종속변수: 삶의 질, $R^2 = .268$, Ad. $R^2 = .262$, $F = 40.720(df = 2, *p = 0.000)$								

* $p < 0.05$ ** $p < 0.001$

6)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회귀식의 F값은 309.180, 수정된 R^2 은 0.579이며 유의수준 1% 이내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설 채택 유무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 유무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943	.160		5.907	.000			채택
자아존중감	.739	.042	.762	17.584	.000**	1.000	1.000	

종속변수: 삶의 질, $R^2 = .581$, Ad. $R^2 = .579$, $F = 309.180(df = 1, *p = 0.000)$

* $p < 0.05$ ** $p < 0.001$

7) 장애 유형 간의 관광만족,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차이 분석

추가로 본 연구는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진행했다. 각각의 분석 결과는 <표 13>, <표 14>, <표 15>, <표 16>과 같다. 우선 관광만족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관광만족 요인 중 정서적 만족과 심리적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t=2.250$, $p=0.025$)을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으로 선천적 장애인의 평균값($M=3.879$)이 후천적 장애인($M=3.52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수용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수용 요인 모두 선천적 장애인의 평균값($M1=3.533$, $M2=4.090$)이 후천적 장애인($M1=3.179$, $M2=3.789$)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해(장애극복의지 $t=2.139$, $p=0.034$ /장애인식 $t=2.297$, $p=0.023$)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수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각각 모두 후천적 장애인의 평균($M1=3.725$, $M2=3.699$)이 선천적 장애인($M1=3.643$, $M2=3.62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표 13〉 장애 유형에 따른 관광만족 차이 분석

구 분		관광만족 점수(정서적 만족)			t-value	p	가설 채택유무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4.219	.6868	-.444	.658	
	후천적 장애인	192	4.278	.7083			
구 분		관광만족 점수(심리적 만족)			t-value	p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3.909	.8427	.719	.473	
	후천적 장애인	192	3.799	.8026			
구 분		관광만족 점수(신체적 만족)			t-value	p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3.879	.6735	2.250	.025*	
	후천적 장애인	192	3.529	.8488			

*p < 0.05 **p < 0.001

〈표 14〉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수용 차이 분석

구 분		장애극복의지			t-value	p	가설 채택유무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3.533	.8210	2.139	.034*	
	후천적 장애인	192	3.179	.8880			
구 분		장애인식			t-value	p	채택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4.090	.5923	2.297	.023*	
	후천적 장애인	192	3.789	.7134			

*p < 0.05 **p < 0.001

〈표 15〉 장애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구 분		자아존중감			t-value	p	가설 채택유무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3.643	.8432	-.517	.608	기각
	후천적 장애인	192	3.725	.7862			

*p < 0.05 **p < 0.001

〈표 16〉 장애 유형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분석

구 분		삶의 질			t-value	p	가설 채택유무
		N	평균(M)	표준편차(SD)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인	33	3.621	.9982	-.430	.670	기각
	후천적 장애인	192	3.699	.7256			

*p < 0.05 **p < 0.001

V.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광활동을 통한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광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온라인 폼을 활용한 비대면 설문을 진행했다. 최종으로 확보된 유효 표본은 총 225개로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가설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향후 관광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무장애 관광 시장 방향성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장애인식)의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결과 관광만족 중 신체적 만족만이 장애극복의지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인식의 경우 정서적 만족과 신체적 만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을 통한 장애수용은 일련의 자아성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아성찰이란 ‘스스로에게 질문함으로써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즉, 일상에서 벗어난 관광 활동을 통해 내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장애 극복 의지로 이어진다.

장애극복의지는 ‘장애를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내적 욕구’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장애수용 요인 중 장애극복의지가 장애인식보다 상위 단계라 볼 수 있는데, 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시 장애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태도의 경우 장애를 지니고 있어도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의 장애를 거부 또는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관광 활동을 통한 장애극복의지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상실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장애’로 인해 스스로 한계를 둔 자신을 반성함으로써 장애를 수용하는 자아성찰의 최종 단계를 위한 것이다.

자아성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 활동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얻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정서적 만족’은 스트레스 해소, 즐거움, 안정감 등 개인의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관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은 관광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개인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불편함, 관광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인해 관광경험에 있어 부정적인 정서를 겪게 되면 이는 기대 이하의 만족

감, 즉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장애인식’ 요인과는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으며, 불만족스러운 관광경험은 변수가 되어 ‘장애극복의지’ 요인에 있어서 정서적 만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심리적 만족의 경우 관광만족-장애수용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 모두 기각되었다. 심리적 만족은 개인을 이해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아성찰’의 마지막 단계와 관련성이 있다. 즉 심리적 만족은 ‘장애라는 상실로 인해 일어나는 심리적 위축을 극복한 상태’로, 장애인식과 장애극복의지의 상위 단계이다. 이에 따라 관광만족 중 심리적 만족은 장애수용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관광만족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각각 부분적으로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는데 자아존중감의 경우 정서적 만족과 심리적 만족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질은 정서적 만족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활동 참여, 성취감과 같은 요인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공통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임을 확인했다.

장애인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본인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성취감의 욕구도 크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더라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것이다.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장애인의 경우 관광활동을 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느낄 것이며, 이는 곧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만족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만족 중 정서적 요인이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주관적 만족인 ‘삶의 질’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만족의 경우 삶의 질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이라는 여가 활동이 자아성찰의 수단으로써 작용할 뿐,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아성찰은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변화의 의지를 갖는 것까지만 영향을 끼칠 뿐, 그 이상의 단계는 앞서 언급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달리 말해 관광을 통해 얻는 새로운 경험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기에, 삶의 질에 있어서 심리적 만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아존중감의 경우 장애인이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 본인의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확장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넓은 범위의 문제 해결법을 제시하여 심리적 만족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수용(장애극복의지,

장애인식)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자아존중감-삶의 질 간의 관계 또한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삶의 질이 각각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다(오윤진, 이순민, 2017; 윤춘모, 박재학, 2020; 이무숙·정대영, 2020)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장애인은 장애를 통해 신체적 및 정신적 상실을 얻게 된다. 특히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상실은 신체적 상실의 불편함을 넘어서 기존 삶에 대한 상실까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위축을 야기해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은 본인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태도, 즉 장애수용(력)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와 더불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삶의 질이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밝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곧 장애수용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즉 장애수용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본인에 대한 믿음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의식과 문제 해결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루어진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될 것이다.

넷째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집단 간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차이 유무를 검증하였다. 우선 관광만족의 경우 신체적 만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을 비교한 결과, 선천적 장애인 집단이 후천적 장애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곧 선천적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보다 신체적 측면에서 관광만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과 달리 후천적 장애인은 과거 비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 제약 없이 관광활동을 경험해 왔을 것이다. 때문에 장애 발생 이전에 경험한 관광활동이 장애 발생 이후의 관광활동보다 더 만족스러웠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 측면에서의 만족은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장애수용의 경우 장애극복의지와 장애인식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장애수용도 마찬가지로 각각 요인의 평균 비교에서 선천적 장애인 집단이 후천적 장애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는 장애발생시기가 이룰수록 장애수용(적응)이 용이하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후천적 장애인의 70% 이상은 장애를 수용하는 데 최소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박재현, 황경열, 2015), 이는 장애를 인정하고 등록한 후 재활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장애수용 과정으로 보았을 때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비교적 낮고 필요 기간 또한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 인지’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는 ‘장애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삶의 질은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자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이들의 장애수용(력)을 높이는 것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는 장애인 관광제약, 관광지 시설(환경) 및 접근성, 관광정책 등 장애인을 ‘복지 대상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또한 관광 참여 욕구가 강한 소비자(수요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을 관광 주체로 바라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밖에 시대적 상황을 통해 해당 연구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관광은 복지 및 여가 활동의 개념을 넘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더 나아가 최근 ‘힐링’이라는 트렌드가 더해져 건강 회복 및 정신적 치유를 위한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즉, 현 시대적 특징에 맞춰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및 힐링’ 관광은 본 연구에서 검증한 장애인의 관광만족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주요 소비 타겟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이에 본 연구는 관광학 분야의 장애인과 관련한 학술적 연구에 기여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를 위해 기존 장애인 범주에서 사회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즉 비장애인을 장애인 범주에 모두 포함하고 이를 새로이 고찰했다. 이에 따라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장애의 범위를 재해석하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의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후속 연구 필요성에 따라 연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학문적 의의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관광은 대중화를 넘어서 여가 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며, 특히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복지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관광 향유는 비장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한편 후천적 환경에 의해 영향받는 ‘후천적 장애인’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장애를 인정한 OECD 장애 출현율과 비교할 시

한국에서의 장애 범주를 사회적 장애까지 확장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 출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기업의 관광수요 주 타겟층으로 보는 일반인은 훗날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기업은 관광 타겟층의 범위를 재고찰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장애인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의제로 '무장애 관광(Barrier Free Touris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을 포함해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관광하기 편리하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한 관광(허병선, 윤지민, 2021)'을 일컫는 것으로, 세계는 장애인 관광을 복지 차원에서 더 나아가 '잠재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유럽의 여러 국가는 이미 관광시장에 있어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같이 잠재적 소비자(수요자)로 간주하여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하에 접근 가능한 관광 프로젝트 추진했다. 그리고 이는 무장애 관광 여행사 9만 개, 관광상품 15만 개, 그리고 그를 통한 830조 유로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YTN, 2019).

한국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2015년부터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서울시는 2017년 8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통해 5년간 152억을 투입을 결정하였다. 이밖에 '민간 건축물의 확대', 'BF 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무장애 관광사업을 도입해 관광 인프라 조성에 힘을 쓰고 있으나, 현재 지역별 사업 규모의 크기 차이를 포함한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

2021년 3월 기준 시도별 무장애인증시설에서 서울 809건, 경기도 1,466건, 부산 296건, 광주 175건 등으로 최하위 도시 대전과 최상위 도시 경기도와의 차이는 약 10배이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자료에서는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 숙박시설 100개소 중 49%가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이 없었으며, 설치된 시설 중 40% 이상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적 측면에서는 무장애 관광 정보 수집이 다소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관광지 및 편의시설 등 무장애 관광 지도를 제공하여 관광 정보 검색이 용이하지만(여행스케치, 2018; 서울연구원, 2019) 한국의 경우 지역별 관광 연계 정보 및 교통수단 정보가 부재하여 여행 정보 접근이 다소 불편하다.

이밖에 인적 자원의 측면에 바라보았을 때, 더욱 적극적인 무장애 관광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투어' 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티티엘뉴스, 2021), 광주광역시에서는 장애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 여행 지원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다(호텔앤레스토랑, 2021).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쓰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및

개별 지자체 간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서울연구원, 2018).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언급한 문제점 개선은 한국 무장 관광 인프라 조성 발전에 기여하여 개인과 기업,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개인적 차원에서 관광 인프라 조성은 장애인에게 ‘관광 소비자’로서 관광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개선된 관광 환경으로 인해 향상된 관광 만족은 이들의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업 측면에서 국가에서 조성한 관광 인프라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력비 등 사업 운영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 약자로 수요 타겟층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고객 유치(이탈 방지)뿐만 아니라 국내외 신규 고객 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미래 관광산업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단순히 국민 복지를 넘어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이미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장애인의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 장애인을 재활 및 복지 위주의 관점이 아닌 소비 주체자로 고찰한 점에서 장애를 재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현 관광 산업이 미래 주요 소비계층을 뉴 시니어 시대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 시장 내에 장애인을 주요 소비자로 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잠재 가치, 더불어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통한 미래 관광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시사점이 있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종 유효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관광이용행태와 장애특성으로 각각 나눠 살펴보았으며, 변수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동시에 장애유형에 따른 집단 차이를 변수별로 확인했다. 그러나 단일화된 분석 기법을 적용해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는 이를 고려해 보다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관광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나, 관광의 범위와 관광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COVID-19 상황에서는 관광활동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이를 경험하면서 시기적으로 느끼는 관광만족 및 심리적 요인은 다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이전/이후를 기점으로 이를 비교하는 연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차후 연구가 이뤄진다면, 실무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관광 상품 개발과 향후 장애인 수요층을 고려한 관광시장의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및 심리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장애와 관련한 관광학 연구 발전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8. 03. 05.). “3년 뒤 저상버스 40%, ‘배리어프리’ 민간건물로 확대” 정부 장애인정 책종합계획,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1803051612001>.
- 고관우, 황경수. (2014).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만족도가 장애수용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4), 1963-1970.
- 고미영, 양성수. (2020). 국내학술지 장애인 관광에 대한 연구동향 내용분석. 관광연구논총, 32(4), 83-102.
- 국가인권위원회. (2019. 12. 13.).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 <https://www.humanrights.go.kr>.
- 김계원, 정광조, 최애나. (2011). 음악치료가 만성정신장애인의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43-57.
- 김기완, 김남조. (2020). 자기결정성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지체장애인의 관광행동 분석. 관광학연구, 44(8), 177-199.
- 김성원. (2015). 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성희, 이동석, 오옥찬, 변경희, 정희경, 김용진, 이민경. (2018).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2.
- 김정운, 이장주. (2005).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2), 1-15.
- 김하경. (2002). 지체부자유학생의 장애수용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40, 23-38.
- 김형수, 김용섭. (2011).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355-379.
- 김혜미. (2016). 노인주거정책에 대하여. 사회과학연구, 9, 117.
- 동아닷컴. (2019. 04. 05.). 마디팔리 “장애인 관광시장 20조원... 서울 잠재력 커”,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190405/94903155/1>.
- 맹성준, 김은경. (2018). 후천적 장애인의 장애수용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중독과 복지, 2(1), 87-102.
- 문상정. (2016). 지체장애인에게 문화관광의 가치는 무엇인가?. 관광경영연구, 20(2), 1-29.

- 문용, 김기영, 윤형기. (2000).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스포츠사회화 주관자, 장애특성, 및 생활체육 참여 간의 인과모형. 한국체육학회지, 39(1), 791-807.
- 문화체육관광부. (2020. 06. 30.). 2019년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 <https://know.tour.go.kr>.
- 문화체육관광부. (2021. 05. 18.).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 <https://www.mcst.go.kr>.
- 미디어생활. (2020. 04. 27.). “장애인들도 여행 가고 싶다”,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7>.
- 박상훈. (2010). 지체장애인의 관광만족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2(5), 517-534.
- 박슬기, 조인환. (2017). 회복탄력성의 선행 요인으로서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6(6), 175-189.
- 박영아, 김태준. (2010).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예방이해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7(1), 61-77.
- 박자경, 김종진. (2009).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 분석. 재활복지, 13(1), 163-186.
- 박자경, 엄명용. (2009).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장애수용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3(4), 1-23.
- 박재현, 황경열. (2015). 척수장애인의 심리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205-225.
- 박준모, 김옥규, 김상길, 최정현. (2009). 공항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0(6), 99-106.
- 박현숙, 양희택. (2013). 장애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3(3), 153-174.
- 보건복지부. (2020. 04. 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http://www.mohw.go.kr>.
- 배만규, 박상훈. (2008). 청각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이 삶의 질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3(3), 185-205.
- 백림정, 한진수. (2017). 힐링관광에서의 고객체험이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6(3), 1-17.
- 서울신문. (2018. 04. 24.). “장애’ 없는 서울 관광 떠나볼까요”,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425017006&refer=#csidx4884c2ecf2db37f8454>

039e16a7aad4.

- 서울연구원. (2018. 02. 27.). “장애인 관광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 전문인력 확충·정보네트워크 구축 필요”, <https://www.si.re.kr/node/58942>.
- 서울연구원. (2019. 03. 06.). “신성장동력 ‘베리어 프리’ 관광 활성화 추진(독일 베를린시)”, <http://www.si.re.kr/node/61553>.
- 서현. (2018). 장애인관광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30(9), 157-170.
- 신승배. (2017).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21, 8(4), 1043-1067.
- 신은희, 오우미젠타로우. (2012). 선천적 시각 장애인에 있어서의 색채어휘의 특징과 관계성. 2012년도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13-14). 한국감성과학회, 서울.
- 아주경제. (2017. 11. 30.).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선포] 서울 구석구석, 그들의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https://www.ajunews.com/view/20171130100752067>.
- 양혜린, 고운정, 박연미, 이해란. (2017). 차별경험과 자기효능감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과정 모델링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7(3), 89-112.
- 여행스케치. (2018. 04. 24.). “서울 무장애 관광, 여행 준비부터 ‘난감’...관련 정보 얻기 어려워”, <http://www.ktske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
- 여행신문. (2021. 01. 06.). “모두에게 여행을, 무장애 관광 코디네이터 모집”,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24>.
- 오승연, 김석영, 이선주. (201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8(8), 1-104.
- 오윤진, 이순민. (2017). 시각장애인의 긍정적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생활만족 간의 관계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33(3), 103-123.
- 윤성욱, 권연숙. (2015).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을 융합적으로 한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5), 91-98.
- 윤지영. (2021). 부산, 무장애(Barrier-Free) 도시로 전환 시급. BDI 정책포커스, 394, 1-12.
- 윤춘모, 박재학. (2020).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지지, 우울,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5(1), 35-64.
- 이경찬, 김남조. (2016).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관광심리 및 행동 과정에 대한 모델 비교 연구 -개인가치,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원 및 관광행동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

- 광학연구, 40(3), 35-53.
- 이달엽. (2014). 장애인 삶의 질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패널 중심의 세 집단 비교. 장애와 고용, 24(3), 99-122.
- 이량석. (2019). 나 홀로 여행이 자아성찰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31(9), 235-253.
- 이명철. (2012). 지체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 삶의 질, 행동의도 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명철, 강인호. (2012). 지체장애인의 관광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7(2), 369-392.
- 이명희, 유용권. (2010). 원예치료가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사회 심리 정서적 행동특성 및 손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3(5), 9-16.
- 이무숙, 정대영. (2020). 특성화고등학교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장애인권감수성 및 장애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1059-1077.
- 이봉구. (2008). 관광 관련 제약요인이 장애인의 관광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eligman의 무력감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2(2), 39-59.
- 이봉구. (2013). 장애인관광시장과 동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나라 여행업 종사원의 인식. 호텔경영학연구, 22(3), 299-316.
- 이상준, 안수영. (2011).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중도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1(3), 239-266.
- 이상훈, 최성준. (2018). 농촌관광 체험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가족유대감의 관계 - PLS-SEM 분석 활용 -. 관광학연구, 42(8), 11-28.
- 이석원, 정희정. (2008). 기능적 장애 개념과 중증 장애인 기준의 타당성.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8(4), 355-373.
- 이충훈. (2011).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충남리포트, 50, 1-14.
- 이철수. (2009).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 임지은, 이형룡. (2014). 장애인 관광객을 고려한 관광자원 물리적 환경의 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38(9), 193-214.
- 장덕희, 임승희. (2021). 중도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

- 문사회 21, 12(3), 2995-3010.
- 전리상. (2020). 장애인의 여행실태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인문사회 21, 11(2), 773-784.
- 전명숙. (2018). 장애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210-221.
- 전영록. (2012). 장애인의 관광활동 유형별 심리적 만족도 차이분석. 관광레저연구, 24(2), 41-60.
- 전영록, 박상훈. (2009). 장애인의 관광활동 유형별 자가지각 삶의 질 비교: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비교. 관광연구, 23(4), 375-396.
- 전용수, 김장순, 박천만. (2007). 여성장애인에 대한 미용교육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007년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100-102).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서울.
- 정순용. (2014). 여성신체장애인의 외모관리행동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용예술경영연구, 8(3), 166-178.
- 정승원. (2012). 고용관련 환경요인이 장애당사자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2(4), 323-350.
- 정승원. (2014).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전망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4(1), 167-197.
- 정정희. (202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법률실무연구, 9(2), 253-292.
- 조금분. (2018). 취업장애여성의 장애수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조윤화. (2018). OECD국가 장애출현율 산출기준과 장애개념 관계성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6(23).
- 조윤화, 문혜미, 김태용. (2020). ICF 장애개념에 근거한 한국 장애출현율 산출기준에 관한 실증연구 - MDS도구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7(47), 129-156.
- 주한미국대사관. (2021. 03. 30.).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2020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https://kr.usembassy.gov>.
- 지명원, 조태영. (2012).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여가만족,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

- 광학연구, 36(6), 145-165.
- 티티엘뉴스. (2021. 09. 06.). “서울관광재단, 시각장애인 위한 경복궁 현장영상해설 투어 운영”, <http://www.ttlnews.com/article/KOREA/10556>.
- 한국관광공사. (2021. 06. 30.). 2020년 국민여행조사보고서 -통계편-.
- 한국소비자원. (2020).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조사. 안전보고서, 1-35.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01. 14.).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 허병선, 윤지민.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장애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 AHP 기법의 적용 -. 관광연구논총, 33(1), 43-68.
- 호텔앤레스토랑. (2021. 05. 04.). [Zoom In] 무장애 관광 시대, 호텔은 정말 준비 됐나 - 모두를 위한 호텔을 위해, <http://www.hotelrestaurant.co.kr/news/article.html?no=8969>.
- 홍선기. (2021). 장애 개념에 관한 독일법제 및 판례검토. 유럽헌법연구, 35, 205-233.
- Albrecht, G., & Devlieger, P. (1999). The Disability Paradox: High Quality of Life Against All Odds. *Social Science & Medicine*, 48, 977-988.
- Alfano, D. P., Nielsen, P. M., & Fink, M. P. (1993). Long-term psychosocial adjustment following head or spinal cord injury. *Neuropsychiatry, Neuropsychology, and Behavioral Neurology*, 6, 117-125.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Hobson, J., & Dietrich, U. (1994). Tourism Health and Quality of Life: Challenging the Responsibility of Using the Traditional Tenets of Sun, Sea, Sand, and Sex in Tourism Marketing.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3, 21-38.
- Kim, H., Wo, E., & Uysal, M. (2015). Tourism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tourists. *Tourism management*, 46, 465-476.
- Livneh, H. (2001). Psychosocial Adaptation to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A Conceptual Framework.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4(3), 151-160.
- Marinelli R. P., & Dell Orto, A. E. (1984).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impact of phy

- sical disabilit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Plummer, D. (2001). Helping Children to Build Self-esteem. *A Photocopiable Book,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Reasoner, R. W., & Dusa, G. S. (1991). Building self-esteem in the secondary schools: Teacher's manual and instructional materials.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 Shahar, G., & Davidson, L. (2003). Depressive symptoms erode self-esteem in severe mental illness: A three-wave, Cross-lagged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890-900.
- YTN. (2019. 05. 23.). “[같이의가치] EU, 장애인 관광산업, 830조 유로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 https://www.ytn.co.kr/_ln/0106_201905231416081263.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5.	게재확정 : 2021. 12. 20.
----------------------	------------------------	----------------------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Satisfaction,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for Disabled People through Tourism Activitie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people with congenital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acquired disabilities

Kang Hyeon Na*·Moon Bo Eun·Lee Dong Ry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satisfaction,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through tourism activities and to verify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disability types. For research analys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people with congenital and acquired disabilities who have experienced tourism activities.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225 copies, excluding the unfaithful response questionnaire,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results as the final valid sample.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tourism satisfaction, physical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willingness to overcome disability and d

* Department of Hotel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Master's Degree

** Department of Chinese, Dankook University

***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ongguk University

isability perception, respectively, and emotional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isability perception. Second among tourism satisfaction, emotional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respectively, and psychological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Third it was confirmed that disability accepta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respectively, and that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Fourth the difference between tourism satisfaction,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between congenital and acquired disabilities was compare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hysical satisfaction among tourism satisfaction. Also disability acceptance was also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contribution of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disability and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the barrier-free tourism market were presented as implications.

Keywords : Congenital Disabilities, Acquired Disabilities, Tourism Satisfaction,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Quality of Life